

역사·문화 살아있는 문화도량으로...

6일 금산사 1410주년 개산대재에 1500여 사부대중 동참

이리역 폭발사고 32주기 추모제 거행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백운사 주지)는 11월 11일 익산역 광장에서 이리역 폭발사고 제32주기 추모제를 거행했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지난 1977년 전북 익산역(당시 이리역)에서 일어난 화약 폭발사고다. 사고 당시 59명의 사망자와 1343명의 부상자,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행사에는 우성 스님을 비롯해 정산사 정산 스님, 금강선원 덕진 스님, 진각종 도정장사, 지역 기관장, 익산불교합창단, 유족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우성 스님은 “지난 날의 여허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관계기관은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전북의 대표적인 사찰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 개산 1410주년 개산대재가 봉행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1월 6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김백호 전북 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산대재를 열었다.

행사는 조사전에서 1410년 전 금산사를 창건한 백제 법왕의 창건정신과 미륵제일 도량으로 이끈 진표율사를 비롯한 역대 금산사를 이끌어 온 스님들에 대한 차례재를 시작으로 명종, 명고, 육법공양, 연혁보고, 역대조사 행장소개,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1410년



11월 6일 김제 금산사 개산 1410주년 개산대재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의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금산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수행원력으로 오늘날 호남제일의 으뜸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제불보

살님들의 정법을 받들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자로서 수행과 전법교화, 가람수호를 통해 지성불교,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과 완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행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과 보살도의 실천은 돌이 아니니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며 “자비는 불도의 근본이므로 보살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불자들은 구도의 본질이 자비행(보살행)에 있으니 자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산대재에 이어 월주·정락·성타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열가지 서원으로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심선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불교문화재의 비밀을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직접 듣는 시간이 진행돼 화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3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6-7시 박물관 교육관에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큐레이터로부터 특정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참석자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특히 11월 7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는 김정현 학예연구원이 들려주는 ‘사자석등, 진리의 불을 밝히다’가 진행된다.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밝힌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석등의 몸체를 사자의 모습으로 만든 독창적인 문화재인 쌍사자 석등의 숨겨진 비밀과 통일신라인 석조미술의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인터넷 신청으로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62) 570-7061 조종제 전북지사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백두산민족예술단 창립공연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현장은 10월 30일 광주 백두산 식당 지하 1층에서 북한의 춤과 노래를 알리는 백두산민족예술단(단장 주미영, 함경남도 함흥 출신) 창립식과 창립공연을 했다.

탈북자 예술인 10명으로 구성된 백두산민족예술단은 창단공연에서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북한 가요와 ‘노들강변’, ‘진달래’, ‘도라지’ 등 전통민요를 구성지게 불렀다.

이어 북한에서도 최고급 무용으로 알려진 마술처럼 옷을 갈아입는 ‘마술춤’ (사계절춤)을 비롯해 ‘물동이 춤’ 등을 화려한 율동으로 선보였다.

주미영 단장은 “타 지역보다



백두산민족예술단의 공연 모습.

유독 전남 지역에 탈북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며 “이들의 재능을 모아 북의 문화도 알리고,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술단체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대부분 북한의 협주단·가극단·예술단에서 활동하거나 어려서부터 전문 교육기관에서 성악, 악기, 무용 등을 전공한 예술인이다. (062)233-567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

13일, 익산서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학술회의

전북 익산지역의 마한·백제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행사가 열렸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11월 13일 익산시 소재 전북도 교원연수원에서 ‘익산,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병모 고려문화재연구원장은 기조강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윤덕환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 ‘익

산지역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을,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센터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지난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단계인 한국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에 등 록된 상태다. 한편, 전북도 백제문화유산 보존추진위원회는 익산지역의 마한·백제시대 유물·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산사분재의 아름다움 선보여

6~11일 백양사, 작품전 열어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있는 백양사에서 산사 분재 작품전이 열려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는 백양분재연구회(회장 신훈)와 함께 11월 6~11일 대웅전 마당에서 ‘산사 분재 작품전’을 개최했다.

분재 90여 점이 전시된 행사는 ‘분재의 자연미와 절제미’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백양분재연구회 회원 50명은 전

국적으로 유명한 백양사의 단풍을 화분에 옮겨 놓은 듯한 예기단풍과 소나무, 소사, 철쭉 등 30여 종의 소재로 만든 개인작품을 출품했다.

시몽 스님은 작품전을 둘러보고 “분재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산사의 풍취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훈 회장은 “작품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원각사 무등어린이회 지도교사 이대중

“아이들은 공동체 삶 배우는게 중요”

어린이·청소년은 우리 불교의 미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을 가보면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열리고 있는 곳은 아주 드물다. 성당이나 교회가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모임을 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광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원각사 무등어린이회는 30여 년 된 어린이 법회를 2005년에 재창단한 단체이다.

이곳을 이끄는 지도교사 이대중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법회를 시작하는 어린이회는 예불, 사찰 예절, 사경, 사불 등 불교 프로그램과 다도, 요가, 책 만들기, 가야금,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에 유익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어린이 명상학교’는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인기 캠프이다. 눈썰매장, 대전과 학단지(천문대), 특전사 1일 체험, 갯벌체험 및 뱀장어 잡기 등이 최근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컴퓨터 자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에게 사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공동체적 삶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행사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이대중 선생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행사들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느님의 음악회’를 열어 아이들의 율동 및 합창, 가야금 병창 등

공연과 1년 동안 법회 때마다 저금통에 모은 보시금을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예.

이대중 선생은 고교 1학년 때 목표 보현정사 학생회 ‘회랑단’에 처음 입문한 것을 계기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고교 2학년 화랑단 단장과 목포대 불교학부 회장을 역임했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보현정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시작으로 15년 가까이 어린이법회 지도했다. 2005년 광주에서 원

각사 어린이법회와 중고등법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선생은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조계종 포교원 제1회 우수 어린이 지도자 포상을 받았다. 현재 그는 불교단체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 홍보팀장이다.

“광주지역에 어린이 법회가 있는 곳이 채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 선생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대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죠. 어린이포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린 불자를 기를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의 말에는 어린이법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온다.

이대중 선생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고 심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대중 지도교사.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올겨울 추위, 난방비 걱정 끝!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 태성전기난로

2010년형 특별보급가

특별보급 68,000원

특별할인가 68,000원

▲TS-7300 적용면적: 10.56㎡ (3.98평)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99.50×1.2W×8=9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88,000원

▲TS-7000 적용면적: 24㎡ (7~10평)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78,000원

▲TS-7200 적용면적: 16.5㎡ (5.0평)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W×8=112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전차단이 적용됩니다. (사)부실 상가 등 일반 전선, 안전용기가 사용은 제외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구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령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점거업소(식당/주점/펜션)

구입문의 : 080-800-0022

인넷주문 www.tsheater.com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영주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